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상정된 의안으로는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높을고창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방울토마토 공동 선별장 개장식

정읍시는 14일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방울토마토 공동 선별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권 농수산유통과장, 이정진 정읍농산물인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방울토마토 공선화 참여농가 일부 회원들만 참석했다.

방울토마토 공동선별장·선별기는 생산능가 및 처리물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0년도에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GAP시설보완사업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7억 7천만원이 들여 구축한 시설이다.

방울토마토 선별물량이 지난해 700톤이었으나 출하량이 증대되어 공동선별장 신축 및 공동 선별·포장 라인과 장비를 확충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별비용 감소효과를 거둬 정읍 방울토마토의 유통 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새만금2호 관할권 김제시로

부안군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 대법원,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기각 판결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14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기각 판결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부당하게 귀속한 결정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소송 제기한 후 5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과 두 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따른 자연·주거환경 피해보상, 주민

어업활동 역사성, 부안군과 제1·2호 방조제 근접성, 제1·2호 방조제 연계 관리 효율성, 향후 연계한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연계 활용 계획 등 수많은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시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행 결정이 매우 부당함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반박해왔으나 결국 대법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새만금 제1호 방조제만 군 관할로 확정됐다. 군은 이번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초과 연결하고 다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전기안전교육원 건립 촉구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 기대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를 (지사장 정용욱)를 방문해 전기안전교육원 건립을 촉구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416억원의 사업비로 신정동 첨단과학 산업단지 일원에 부지 3만6천㎡, 건축면적 1만7천여㎡ 규모로 교육관, 생활관, 실습장 등 신축될 예정이며 전북서부지사는 2020년 12월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전기안전교육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중의장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안전교육원 건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13일에는 전북서부지사를 방문해 사육신축에 대한 경과에 대해 경청하고, 건립에 따른 의회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를 방문해 전기안전교육원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전기안전교육원 건립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매주 150여명의 교육이 진행되어 연간 5,000명의 교육 인원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숙박시설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꾸러미 선물세트 18일부터 판매

고창군이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다양한 고택 농특산물 제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선물세트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특산물 9개 업체 제품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이번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 판매한다.

설명절 꾸러미세트는 ▲한반도 세트(3만원/삼색보리, 감정볶음땅콩, 생들기름) ▲첫수도 세트(5만원/토끼고추장, 명인간장, 요리죽염, 북분자발사믹 식초, 통후추추고라이더) ▲높을고창쌀(5만원/10kg) 총 3종이다.

군민, 재외군민, 공공기관 등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

고, (주)고창항토배기유통(564-2009, 택배비 무료)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특히 높을고창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최고품질인 수광벼 품종으로 생산한 프리미엄 쌀로 고향의 밥맛을 전하는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군은 향후 명절 꾸러미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제작해 고택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해 지역 생산 농가들과 가공업체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2021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5개노선 소방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방도로 5개노선 개설 추진

정읍시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개선에 기여”

정읍시가 2021년 5개노선 소방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약 30억원을 투입해 신태인을 소방도로 각각정리공사를 포함하여 5개소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구간은 신태인초교 앞 각각정리공사 외 △노인복지관 뒤(신태인리 66-22번지)길이=201m, 폭=4m △예술회관~양우내안아파트(시기동 67-13번지) 길이=300m, 폭=8m △유창아파트 주변도로(시기동 신45번지) 길이=381m, 폭=6~10m △대흥2길(시기동 198-118번지) 길이=120m,

폭=6m 등 4개소를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잡았다. 이들 대상지역 일대는 도로 폭이 좁아 마을 안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밀집 지역이었다. 이에 민일의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유진섭 시장은 “소방도로 개설은 일대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취약 지역 중심의 소방도로 개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폭=6m 등 4개소를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잡았다. 이들 대상지역 일대는 도로 폭이 좁아 마을 안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밀집 지역이었다.

이에 민일의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유진섭 시장은 “소방도로 개설은 일대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취약 지역 중심의 소방도로 개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내 ‘눈사람’ 조성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14일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내 대형 눈사람(부제 : 한겨울의 꼬마 눈사람)을 제작 설치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는 컨셉으로 제작된 대형 눈사람은 아빠, 엄마, 아이 눈사람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높이 6m, 폭 4m의 조형물로서 신축년 새해부터 내린 내장의 눈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새해 희망의 의미를 더했다.

최근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시에서는 주요도로 및 시설물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한 한편, 눈을 이용한 관광기획에 고심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내시설을 피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친근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형물을 조성했다.

정읍시장(유진섭)은 “코로나19로부



터 안전하고 쾌적한 내장의 설정 관리를 위하여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도 “대형 눈사람을 통한 소중한 추억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조형물을 오는 1월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weight loss featuring a woman in jeans and text: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